

## 우리들이 일구어야 할 지속가능한 사회



권 미 혁

그동안 우리는 이 난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실천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의 실천은 개인적으로 소박하게 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어서 많은 경우가 정부의 환경정책이 제대로 정비되고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정책의 문제라 할지라도 개인들은 개인대로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리라.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 역시 우리들의 몫이므로.

환경오염의 심각함을 고민하다 보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실천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태도를 바꾸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호에는 “우리들이 일구어야 할 새로운 생활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 1. 우리 자식들의 미래는 ?

1. 환경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장래는 심각한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지나친 자원의 고갈때문이다.**

세계적으로 50년대 이래 구리·에너지·육류·철강·목재의 소비는 2배로, 자동차 소유와 시멘트소비는 4배로, 플라스틱 사용은 5배로, 알루미늄소비는 7배로, 비행기 여행거리는 32배로 증가했다. 지금부터 50년 내에 세계경제가 5~10배의 양적 팽창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소비증가 추세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고 지구의 자원은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둘째,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위기.**

한편, 지구의 자원이 어느 시점까지 조

달릴 수 있을지 몰라도 많은 환경전문가들은 자원의 고갈 이전에 도리어 그 자원의 소비에 따르는 환경오염으로 지구에 위기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대기중 농도가 산업혁명 전 250피피엠에서 현재 345로 증가했으며 이것이 기온상승을 일으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두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2050년 경에는 해수면이 25~140cm가, 지구에 매장된 석유, 석탄을 다 태우면 해수면은 60cm가 상승하게 된다. 일년에 남한만한 산림이 농경지로 개간되고, 농경지 중 600만ha가 완전한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

한편 자원의 고갈 반대편에는 견잡을 수 없는 쓰레기가 또다른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어 각국이 그야말로 쓰레기 전쟁을 치르고 있다. 결국 자원이 고갈되기 전에 지구의 존립에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2. 그러면 이와같은 오염과 고갈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지구의 위험이다.**

선진공업국이 과거와 같은 개발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저개발국이 이를 그대로 반복한다면 지구의 위기는 닥쳐올 것이다. 예를 들어 아마존강 유역의 밀림은 그동안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많은 약의 원산지가 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 이 지역은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무차별하게 벌목되고 있다. 만일, 지금과 같은 속도로 벌목이 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들은 약의 원료를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둘째, 직선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경제 이론과 소비사회의 조장이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성장'을 위해 줄기차게 달려왔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생활의 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지 못한 채 오로지 가치를 화폐의 양으로만 환원하였다.

자원의 고갈  
반대편에는 또,  
견잡을  
수 없는  
쓰레기가  
또다른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다.



예를 들어 환경의 악화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료가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경제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명이 긴 제품을 생산하는 것 보다는 빨리 망가지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경제성장지표에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게 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였다. 또한 모두가 고르게 잘사는 사회보다는 돈있는 사람이 더더욱 돈을 많이 가지는 부의 불평등 문제 역시 심각한 실정이다.

## 2. 지속 가능한 사회란 ?

대기오염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물질은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자동차이다. 결국 대기오염의 해결을 위해선 자동차 생산을 줄이고 안타고 다녀야 하는데 “그럼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물론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지속가능한 사회’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란 인류의 각 세대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토대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여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즉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에서 개발을 이루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생산만 해도 자본의 논리에만 맡겨 놓는다면 환경오염을 줄이는 노력은 경비가 많이 들므로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깨어 있어 다른 무엇보다도 무공해 자동차의 출현을 강력히 희망하면, 완전 무공해는 못되더라도 대기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

을 강력 요청한다면 과학기술의 방향이 자동차의 내구성을 교묘히 짧게 하는 데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공해차의 저렴한 보급에 쏟아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일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 기업 모두가 나서서 해야 하지만 자본의 논리를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기업, 정부에 앞서 소비자들이 각성하여 이들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 첫째, 지속가능한 사회는 철학의 문제

즉 어떤 한가지 일의 결정에도 생태계와 자연보호, 자원재활용의 관점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다.(일상적인 생활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철학의 차이를 토의해 보자.)

둘째, 소비문화의 본질을 잘 이해하여 소비만능 문화가 아닌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에서는 소수에 집중되어 있는 물질적 부보다, 더불어 인간답게 서로 아끼며 나눌 수 있는 공동체문화, 자연을 사랑하고 소중히 하는 문화, 협동하는 문화 속에서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본다.

## 3.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 1. 협동에 의한 공동체생활을 모색하자.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도시화, 거대화를 지양하고 서로 돌볼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사회규모로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도농간의 격차해소, 도시로의 집중 방지, 거대도시 출현의 저



지속가능한 사회,  
미래의 우리 자손들에게  
당당하게  
물려주어야 할  
사회를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이다.

지, 지역경제의 고른 발전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효과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야말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작게는 가까이 사는 지역주민들끼리 여러 형태의 공동체 시도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생산자공동체, 아파트공동체, 교육공동체 등)

## 2. 생활모습을 바꾸자.

### ① 육류소비를 대폭 줄이자.

우리나라는 사람과 가축을 합치면 거의 1억이상의 인구가 되는 폭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기1kg을 생산하려면 5kg의 곡물, 휘발유 9리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소비한다. 또한 가축의 노가 끼치는 심각한 수질오염, 토양침식과 물소비, 농약과 비료의 유출, 지하수 고갈, 온실효과를 가져오는 메탄가스의 방출 등 환경피해를 가져온다. 쉽게 말해 소를 먹이기 위해 인간이 먹을 곡식을 심을 땅을 목초지로 만들어 결국은 황폐화시키는 꼴이다.

영양면에서 보더라도 칼로리의 10~15%만을 지방질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콩 등 식물성지방의 영양가가 훨씬 높음은 잘 알려져 있다.

### ② 광고에 속지 말자.

소비문화를 지양해야 하겠다. 우리 사회는 꼭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보다는 자기 과시와 멋을 위해 쇼핑하는 습관이 점점 늘고 있다. 때문에 주부들의 여가시간의 상당 부분을 쇼핑이 차지한다는 보고도 나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총동구매나 불필요한 물건 사재기를 벗어나 꼭 필요한 구매 외에는 아껴쓰고 나누어 쓰는 생활을 하자.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소비자들은 광고를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광고가 인간에게 끼치는 문화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 허위 과장 광고, 책임성없는 광고, 어린이들의 가치관에 심각한 왜곡을 주는 상업성 광고, 성을 상품화하는 퇴폐적인 광고 등등을 더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줄어들면 그만큼 불필요한 것을 만드는 사람도 줄 것이고 그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쓰레기도 줄게 된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는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항의하며, 만일 규제하지 않을 경우 해당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광고윤리를 엄격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③자원과 에너지를 아껴쓰자.

④자녀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자.

⑤지역사회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자.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하천이 있는데 공장에서 배출하는 산업폐수 때문에 더러워졌다고 하자. 언뜻 보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닌 것 같아도 바로 그와 같은 하천에서 흐르는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어 우리들의 수도꼭지로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 이웃과 주변의 환경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여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을 생활화하자.

⑥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소비자 운동에 참여하자.

⑦환경운동에 동참하자.

보통 환경운동하면 극성스런 몇명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내가 사는 집주변을 내가 깨끗이 한다는 마음으로 조그마한 성의를 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환경운동이다.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환경문제에 대해 고민을 보다 먼저 시작해온 환경단체들의

“

내가 사는 집주변을  
내가 깨끗이  
한다는 마음으로  
조그마한 성의를  
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환경운동이다.

”

문을 두드리는 일이다. 시간이 허락하면 회원이 되어 적극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여력이 없는 경우 자료를 받아 본다거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교육에 참가한다거나 아니면 후원회원으로 얼마씩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큰 환경운동이 된다.

아울러 신문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기사가 나면 오려두고 이웃과 나누어 보거나 작은 모임을 만들어 토론해 보는 것도 큰 환경운동이 될 것이다.

#### 4. 우리가 일구어야 할 새로운 생활 태도

이제 지속가능한 사회, 미래의 우리 자손들에게 당당하게 물려주어야 할 사회를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이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 한사람 한사람이 얼마나 소중히 환경을 지키느냐에 따라 우리는 쾌적한 환경,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

〈필자=여성민우회 노원·도봉 지회 회원〉